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2007년 단기선교와 선교 훈련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토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 땅의 열방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화합됩니다.

교회의 여건과 사람으로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제 하나되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십시오.

이 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2007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17절은 영원한 도덕의 기준인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22~26절은 종교 생활과 관련된 2개 조항의 의식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십계명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어서 3~11절은 대신(對神) 관계를 다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2~17절은 대인(對人) 관계를 다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셨고,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 20:3)

기도 제목 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민 이스라엘의 행동 규범에 있어 뼈대를 이루는 십계명과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명했던 전 장에 이어 본 장에는 그 십계명의 실제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5, 제6 계명에 관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1절은 종에 관한 규정을, 12~17절은 생명 보호에 관한 규정을, 18~36절은 부주의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을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 섬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남종과 여종의 관계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보잘것 없고 천대받는 존재인 노예 신분에 불과한 사람들에게까지 지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출 21: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 15분 전에 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시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20:1~23:19까지 이어지는 시내산 율법 조항의 일부분입니다. 1~15절에서는 손해 배상의 법을 다루고 있고, 16,17절은 혼인빙자 간음 사건의 처리규정을, 18~20절은 사교, 변태 성욕자, 우상숭배자 등에 대한 사형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 그리고 창조 원리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습니다. 한편 21~27절은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을, 28~31절은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식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율법인 본 장에 나타난 규례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에 관하여 율법은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그들의 이웃과 기꺼이 나눌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말 할 수 없는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버려진 영혼, 소외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소외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22)

기도 제목 ①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 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꾼으로서 헌신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20~22장에 열거된 일반 규범 마지막 부분의 결론입니다. 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사회정의와 종교적 규례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1~13절에서는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금지와 같은 사회정의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14~19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보호하는 데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며, 또한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요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2) 이것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출 23:2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② CMTC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
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린 후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친히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9~12절)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사십 주야를 함께 지냅니다.(13~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율법 준수를 맹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인 언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고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바쳐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맹세를 지키는데 실패하였고, 율법은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를 통한 언약의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파송을 준비하는 팀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지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부터는 성전의 원형이 된 성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장차 성전의 기원이 될 이 성소는 신정국가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에 예물로 성의를 다해야 했습니다.(1~9절)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 소용되는 기물들의 제작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증거궤의 모양을 자세히 말씀하시고,(10~22절) 다음으로 진설병을 놓는 상(23~30절)과 그 곳에 놓을 등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31~40절) 본 장에 나타나듯이 이처럼 기물 하나에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심은 성막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영원하고 참된 성막을 세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임을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각 성도의 인격 안에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고전 3: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주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출 25:1)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세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가 언급된 전 장에 이어 이 장에는 성막 본체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전 내부와 외부로 덮는 양장 제작법에 관해 언급하고, (1~14절)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과 조각목 띠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0절)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칠 휘장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31~37절)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두 곳은 같은 공간에서 사이를 가르는 휘장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 27:5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아 영원한 영벌에 처할 죄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찌니라”(출 26:30)

기도 제목 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위원회에 속한 모든 청지기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하나님은 번제단과 그에 따른 제사 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막 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등에 사용될 기름과 등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죄 사함을 받는 영적 장소였습니다. 이 단의 불은 여호와께서 직접 불이셨으며(레 9:24) 또한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레 6:9) 번제단은 죄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며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룩한 희생의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제도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구속의 모형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히 8:1~6)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은 죄를 낱알이 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뜰’은 ‘좁은 장소’, ‘괴로움’을 뜻하는 데 ‘성막의 뜰’은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는데, (16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요 10:1~9)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찌니라”
(출 27:19)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을 주소서. ② 각 위원회와 교구, 부서를 섬기는 남녀 교역자들이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제사장의 복식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에 관한 규정과 복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아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히 4:15,1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세우십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과 희생,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계 2:10)

에봇과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뭉 등 그 밖의 복식에 관한 모든 규정은 각각 어깨 위에 정사를 메고 모든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딤후 3:15)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찌니”(출 28:1,2)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집회가 더욱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정과 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과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준비를 비롯하여 속죄제와 번제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절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결과 제사장 역시 죄인 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헌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히 5:1)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룩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뜻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요 19:30)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출 29: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 다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분은 분향할 단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의 제작과 단을 안치할 장소, 그리고 단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향할 때 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시 141:2, 계 5:8)를 의미하는데 단을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시고 단에서 피올 향 역시 등불과 함께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며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요일 5:14)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광야지대에서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종교예식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담긴 물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요일 1:7)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출 30:2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07년 CMTC훈련을 섬기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성막 건축과 함께 모든 기구들을 말씀하신 규정대로 제작할 사람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찬만하게” 하셨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고전 1:26)를 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명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찬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내신 모든 계시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합니다.(고전 12:3)

성막의 모든 제도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성막제도와 관련한 모든 일을 담당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제도와 각각의 양식에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지혜입니다.(고후 3:7~9)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찬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출 31:3,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제도에 대한 계시와 십계명으로 일컬어지는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계명(출 20:1~5)을 통하여 엄격하게 금지하신 우상숭배를 구체적으로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확실히 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왜곡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20:2)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모세(1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4,5) 그러나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10절)와 모세의 책망(21절)에 대한 아론의 변명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 형상에 대하여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늘어놓는 궁색한 변명에서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눅 5:22) 범죄한 영혼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벧후 3:9)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출 32:21)

기도 제목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헌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여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파기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13절)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여정에는 결코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3절)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단장품을 제할 것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벧후 3:9)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렘 29:12,13)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기도 제목 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명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누가복음 20장은 19:28~23:56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도하는 일련 기사의 연속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고난주간의 삼일째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눅 19:45~48) 이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어 논쟁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시어 메시아의 참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며칠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은 결국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을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에 대해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이성, 경험, 감정, 자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흙으리라”(눅 20:18)

기도 제목 ① 말씀을 향한 겸손한 자세를 주셔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② 당회가 성령충만하고 장로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눅 21장 찬송가/163장

본 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시에 있을 세상 종말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의 징조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8절), 난리와 소란(9,10절), 자연 재해(11절),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12~19절)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에 있을 환난과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20~28절),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29~38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듯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 끝 날이 가까왔음을 깨달아야 하고, 매순간이 주의 재림의 때가 될 수 있기에, 늘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름을 예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하며 깨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6)

기도 제목 ①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② 제1차 천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의 본격적인 수난이 시작되는 본 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눅 23:46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 사이의 시간 공백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예식을 행하셨습니다.(7~23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최후의 만찬이자 첫 성찬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예표했던 실체로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요 1:29)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겿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자신을 부인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24절) 또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45절)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33절)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좇지 않으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들이 되게 해 주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금요일 새벽부터 그 날 오후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의 상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특히 예수님의 죽음심과 관련해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초자연적 모습으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44절) 둘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45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제거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47절)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려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눅 23:47)

기도 제목 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주일에 드러질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본 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3~49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50~53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은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과 구속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겪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가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7)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사단에게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5)

기도 제목 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2007년 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친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신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하실 구속자가 되시고자 성육신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구주이심을 강조하면서 이후 전개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주되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기도 제목 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소서. ②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1차 청지기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1~12절)와 성전 정화 사건(13~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천국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당신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입증해 보이실 최대의 표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접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 2: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요 3:17~19)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좇거나 자기 자신을 마음의 왕좌에 올려놓는 교만함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를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과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부하였고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기도 제목 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형제지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하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과는 달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이 없는 사이에 누가 음식을 드려서 잡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첫째 자리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저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막 1:38)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하셨습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삶의 우선이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 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구약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모든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전하는 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할 때 복음을 전함에 능력과 생명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시는 확실하며 완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유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참 진리를 알지 못했고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함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기도 제목 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외선부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주님을 만난 군중들에게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던 무리들은 오병이어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로, 주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 어의 표적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것과 대속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지만, 이 의도와는 달리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썩는 양식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명예와 권세를 돈으로 사고 팝니다.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만족을 끝없이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며 육신의 만족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성 깊은 곳에는 불타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무엇이든지 탐내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더욱 완벽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 곧, 자기 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랑과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리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만을 날마다 매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요 6:27)

기도 제목 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② 학습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 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께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안식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제정의 근본 정신인 구원과 사랑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 법을 율무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주인되신 예수님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자신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에 참된 안식 즉,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소망해야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요 7:23)

기도 제목 ① 죄를 해결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소서. ②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는 진리를 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즉 진리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알아서 유익한 모든 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곧 제자들입니다.(참조, 요 17:14) 이들은 주 안에 거하는 실존자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 깨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길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참조, 요 1:17)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려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고 견디지 못하며 결실이 없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참조, 마 13:18~23)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해 준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천국일꾼들이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과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적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소경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타산을 따지시거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흔히 눈병, 피부병 등에 침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일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일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기에 다시 그 손과 그 재료인 흙으로 소경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경의 눈에 두툼한 흙이 발라졌을 때 소경은 더더욱 소경임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인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에 소경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에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듯이 소경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소경이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겨있던 소경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흙이 소경의 눈에서 씻겨졌을 때, 죄의 명에도 더불어 씻어지고 영광스러운 빛과 자유가 은총의 자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

기도 제목 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토요일에 실시되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2월 구역교재 초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참 신자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보혈로 가득한 믿음으로 하나되어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는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202	막 8:38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증거하라
0209	히 12:1~3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자기를 살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주하라
0216	빌 2:1~5	교회 안에서의 화합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화합하라
0223	요 10:7~10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증거하라

| 찬 송 |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본 문 |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음으로 路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핀 뒤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막 8:34

자신의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셨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신앙고백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막 8:36,37 / 사람이 만일 온 를 얻고도 제 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지극히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들을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신앙고백은 무엇입니까?

눅 12:8 /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_____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_____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공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요 19:38)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십시오.

롬 10:9 / 네가 만일 네 으로 예수를 주로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에 믿으면 을 얻으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결과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행 4:20

세례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듣고 받아들인 3천 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2:41)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의 증거를 듣고 난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8:38,39) 아나니
아가 사울을 고친 후 사울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행 9:18 / 즉시 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된지라 일
어나 를 받고

행 10:47,48 /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받았
으니 _____ 하고 명하여 _____
하니라

세례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상징하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세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마 5:13 / _____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 5:14 / _____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빌 2:5~7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_____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_____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로 路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삶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막 8:35 / 누구든지 _____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_____

막 8:38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2.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2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 초 점 |

자기를 살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주하라

| 찬 송 |

찬송가 394장 주를 양모하는 자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 본 문 | 히브리서 12:1~3

¹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²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³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마음으로 路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는 생명을 위한 경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로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 현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 경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삶,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끕니다. 또한 천국, 곧 약속의 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경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고전 9:26 /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람마다 제 각각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점은 동일합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좁은 길에 들어섰고, 천국을 향하고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의 경주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라면 이미 여러분의 발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길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에 의해 잘 다져진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 12:1 / 이리므로 우리에게 같이 둘러싼 허다한 들이 있으니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믿음으로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났습니다.(히 11:8~10)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히 11:24~26)

히 11:7 /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하였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는 결코 생명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요일 5:4,5 / 대저 _____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_____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기 자신을 살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바른 과정을 밟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히 12:1 / 모든 _____ 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모든 사람을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눅 9:62 / 손에 □□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의 □□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생명의 경주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게 뻗어있는 길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제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엡 4:22

벧전 2:11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방해물입니다. 이것들은 경주에서 속력을 점점 늦추게 하며 탈진하게 합니다.

※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을 살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복음 증거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교회와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히 12:2 / 의 주요 또 케 하시는 이인 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길을 걷는 동안 함께 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용기와 위로의 격려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路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13:8)하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2:21 /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 12:3

충현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매순간 자기 자신을 살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자기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생명을 위한 경주를 하게 하소서.
2.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3과 교회 안에서의 화합

| 초 점 |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화합하라

| 찬 송 |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 본 문 | 빌립보서 2:1~5

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
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② 마음을 같
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③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④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
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리스도 예수 of 마음이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로 화합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행 1:14)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행 2:4)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눕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행 2:43)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나아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행 2:47)

※ 무엇이 교회 안에서의 화합을 방해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혹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라고 도전합니다.

빌 2:2 /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을 같이 하여 같은 □□을 가지고 □□을 합하며 한 □□을 품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에 근거한 화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화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허영심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빌 2:3 / 아무 일에든지 ☐☐이나 ☐☐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논쟁과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갈등과 언쟁을 없애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갈 5:13

교회의 모임과 집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는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논쟁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 3:3 / 너희가 아직도 ☐☐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빌 2:3,4 /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_____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_____ 나의 기
쁨을 총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서 사랑을 이룹니다. 사랑은 다
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
이나 단점을 들쳐 내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롬 12:10 /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하고 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란 자신의 목소리
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려고 애쓰거나 교회에
서 자신이 가진 지위를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일 3:14 /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에서 옮겨 으로 들어간 줄
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에 거하느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사랑은 변함없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빌 2:5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다투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존심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일 5:4,5 / 대저 _____ 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_____ 가 아니면 _____ 가 누구뇨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먼저 주는 것을 시작하고 자신만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멈추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삶의 대답입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행 20:28

엡 1:23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심령을 가득 채운 성도로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게 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는 총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3.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이 되신 예수님을 닮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나는 양의 문이라

| 초 점 |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 찬 송 |

찬송가 442장 선향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 본 문 | 요한복음 10:7~10

㉞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㉟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㊱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㊱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으로 路

※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되풀이해서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했고, 그 속에 우리가 매우 유념해서 들어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 10:7 /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_____
너희에게 말하노니 _____이라

진리에 대한 주님의 위대한 영적인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간결한 말로 그 진수를 설명하십니다.

요 6:35 / 내가 곧 ☐☐의 ☐이니

요 9:5 /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의 ☐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생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바로 그 문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 3:17 / 하나님이 그 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이끄는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롬 5:1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의롭다하심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엡 2:1)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후 5:17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되었도다

요 3:36 /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있고 이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 5: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_____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일 5:12,13 / _____에게는 생명이 있고 _____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 10:8 /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요 □□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들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세상에는 외식으로 가득한 종교예식, 윤리, 선행 등 매우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주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행 4:12 / 다른 □□로서는 □□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을 얻을 만한 다른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문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 3:16

롬 10:13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부한 복이 있는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路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모든 문들을 거절하십시오. 이 문 곁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강도요 도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지혜롭게 말한단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는 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요 10:10 /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을 얻게 하고 더 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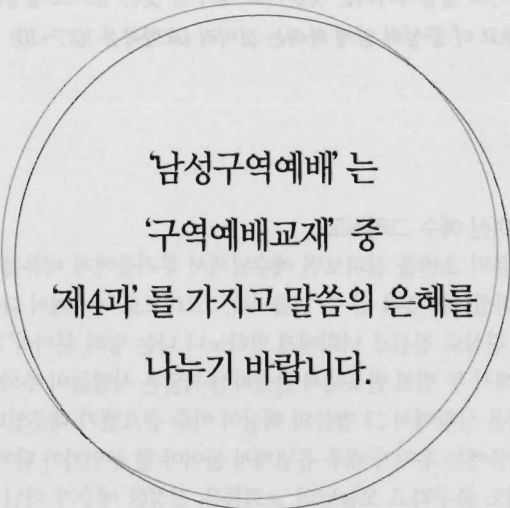
계 3:20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오직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3.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늘 나아가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⁷⁾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⁹⁾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¹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7~10)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초반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되풀이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7절) 이처럼 주님께서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들이 주의해서 듣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매우 유념해서 들어야 할 무언가가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진정한 예수가 아닌 축복의 예수, 재미있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주님의 위대한 영적인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아주 미미한 부분만 발견해도 지루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과장하기를 좋아합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간결한 말로 그 진수를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잘못된 우상, 공상에 불과한 이념, 가짜 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속이며 구원을 사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의 참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영생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심을 의미합니다! 문은 일정한 장소로의 출입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3:17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이끄는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엡 2:1)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

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요한복음 3:36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진리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주옥같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2,13) 여러분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8절) 죄 사함을 얻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새 생명을 주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들을 찾으려 애씁니다. 세상에는 외식으로 가득한 종교예식이나 선행, 구제 등 매우 다양한 종교적인 문이 있습니다. 사도 행전 4:12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문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누

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국적이나 피부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13 또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부한 풀이 있는 주님의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10절) 단호히 다른 모든 문들을 거절하십시오. 이 문 곁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지혜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부한 물질로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겸손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는 것은 사망, 곧 멸망 뿐입니다. 충현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그 문이시며 오직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인으로 교회의 문만 드나든다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현교회는 여러분을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아가십시오.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

충현의 만나 2007년 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안치원(1-7일) 이성진(8-14일) 유재진(15-21일) 김철규(22-28일)

구역예배교재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